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아파-인능 U+ 프로야구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ONE스토어 / Play스토어 / App Store ▶ [U+ 프로야구] 검색

불혹의 홀드왕 유혹의 커브

KIA 투수 임창용

프로 24년차 베테랑
여전히 필승조 활약
“매번 이기고 싶고
안타 맞으면 화난다”



매일 경기에 나가고 싶은 '만형'의 홀드왕 도전기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의 최고참은 1976년 6월 4일생인 임창용이다. 생일이 5월 27일인 동갑내기 한화 박정민에게 최고령 자리는 내줬지만, 진흥고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에 뛰었던 그는 가장 오랜 시간을 프로 무대에서 보내고 있는 '최고 연장' 선수다.

올해로 프로 24년 차인 그는 여전히 KIA의 필승조로 활약하면서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직구 구속도 140km 후반을 찍으면서 후배들에 뒤지지 않는다. 여전히 스피드에 변화무쌍한 변화구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이 그의 든든한 자산이다.

임창용은 지난 17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세 번째 홀드를 기록했다.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다. 4-3으로 앞선 8회 마운드에 오른 그는 첫 타자 채은성과의 승부를 볼로 시작했다. 2구째 커브는 몸에 맞는 공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자 유강남에도 연달아 볼 두 개를 던지면서 어렵게 경기를 시작했다. 커브가 말을 듣지 않자 그는 몸쪽 직구를 던져 파울을 유도했다. 이어 높은 공으로 스윙을 유도한 그는 145km의 직구로 다시 한번 헛스윙을 유도하면서 원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주자 정주현의 도루에 이어 오지환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1사 1·2루, 설상가상 양석환과의 승부에서도 변화구 두 개가 연달아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났다. 위기에서 베테랑의 노련함이 빛났다. 커브로 허를 찌르면서 스트라이크를 잡아냈고, 3볼 1스트라이크에서는 스플리터를 던져 파울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커브를 높게 떨어뜨려 우익수 플레이어를 잡아



냈다. 대타로 나온 이천웅과의 승부는 백미였다. 직구만 4개를 던진 그는 헛스윙 삼진으로 무실점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중요한 순간 직구 스피드는 148km까지 찍혔다. 임창용은 “조반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 지난 롯데전 2실점이 너무 아쉽다”며 “이제 몸이 올라오는 것 같다. 컨디션이 떨어졌다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이 그렇다. 날이 좋아지면 더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팀 막내 유승철과는 무려 22살 차이가 나지만 체력과 욕심은 결코 후배들에게 뒤

지지 않는다. 임창용은 “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내 만족이다. 나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며 “마음 같아서는 매일 경기에 나가고 싶다.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매번 이기고 싶다. 여전히 타자들 상대하는 게 재미있고, 안타를 맞으면 화가 난다”고 승부욕을 보였다. 욕심은 많지만 ‘타고투저’의 현실이 만만치는 않다. 임창용은 “요즘 타자들이 너무 좋다. 예전에는 밀어서 홈런 치는 타자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기술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

아지고, 경기장도 파울 플레이를 잡기 어려운 구장들이 많다. 투수들은 몸으로만 승부해야 하는 거라서 어렵기는 하다”고 웃었다. 매 시즌이 역사가 되는 임창용. 그는 올 시즌에는 ‘홀드왕’을 목표로 하겠다는 각오다. 임창용은 “안 해봤던 걸 해봐야겠다. 홀드왕에 도전하겠다”며 “후배들과 리그에 사리가 되고 싶다. 나이 많은 선수들의 힘과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리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4호 홈런 ... 2안타 4득점 맹활약 '부진 탈출'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가 10경기 만에 홈런을 때려 부진 탈출 신호탄을 쏘았다.

추신수는 18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 방문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6회초 솔로포를 터트렸다.

팀이 5-1로 앞선 가운데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선 추신수는 요니 치리노스의 2구 시속 147km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우중간 담을 넘겼다. 7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시즌 3호 홈런을 친 뒤 11일 만에 나온 홈런이다.

추신수는 앞선 세 번의 타석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했다. 1회초에는 볼넷을 얻은 뒤 아드리안 벨트레의 희생 플라이 때 홈을 밟아 득점을, 2회초에

는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추가했다. 5회초 추신수는 선두타자로 등장해 다시 볼넷을 골랐고, 이번에도 벨트레의 희생플라이로 득점에 성공했다.

6회초 홈런으로 이날 경기 3번째 득점을 올린 추신수는 8회초 1사 3루에서 내야 땅볼을 쳤고, 3루 주자 드루 로빈슨은 홈에서 아웃됐다. 추신수는 안타 2개가 이어져 다시 홈을 밟았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4득점을 올린 건 3번째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2012년 7월 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이후 2117일 만이다.

2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 4득점으로 활약한 추신수의 타율은 0.219로 올랐다. 텍사스는 토타자 추신수의 활약을 앞세워 탬파베이에 7-2로 이겼다. /연합뉴스

오승환 시즌 첫 홀드 ... 캔자스시티전 1이닝 무실점

‘돌부처’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이번 시즌 첫 번째 홀드를 쥘었다.

오승환은 18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홈경기 더블헤더 1차전에서 5-3으로 앞선 6회초 등판, 1이닝을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8경기에서 7이닝을 소화, 2점의 자책점을 허용한 오승환의 평균자책점은 2.57까지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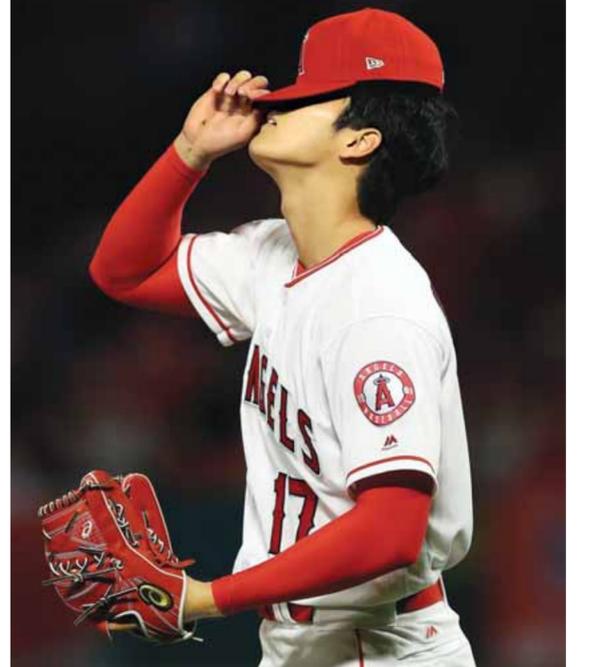
오승환은 19개의 투구 중 스트라이크를 14개 꽂으며 공격적으로 나섰다. 최고 구속은 시속 149km까지 나왔다. 선발 하이메 가르시아로부터 마운

드를 물려받은 오승환은 첫 타자 호르헤 솔라에게 중견수 앞 안타를 맞았다. 오승환은 올해 등판한 8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허용하고 있다.

무사 1루에서 체슬리 커스버트로부터 내야 땅볼을 유도해 2루에서 선행 주자를 잡은 오승환은 파울로 올랜도와 7구까지 가는 대결 끝에 루킹 삼진을 뽑았다. 이어 알시데스 에스코바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맡은 임무를 완수했다.

토론토는 6회말 랜달 그리척의 3점 홈런 등을 묶어 11-3으로 달아나면서 승리했다. /연합뉴스

보스턴에 못매 혼쫓난 오타니



2이닝 홈런 포함 3실점 강판 ... LA에인절스 1-10 대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마운드 위에서 처음으로 쓴맛을 봤다.

오타니는 18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2이닝 4피안타 1탈삼진 2볼넷 3실점을 했다. 최고 구속은 161km까지 찍었지만, 결정구인 스플리터가 말을 듣지 않았다. 1회 28구, 2회 38구를 던진 오타니는 총 66개의 투구 가운데 스트라이크가 34개, 볼 32개로 제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타니는 1회초 보스턴 토타자 무키 베츠에게 선두타자 홈런을 내주고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풀카운트에서 시속 157km 낮은 포심 패스트볼을 던

오타니는 1사 후 핸리 라미레스에게 중전 안타를 내준 뒤 폭투까지 범해 2사 2루 추가실점 위기에서 라파엘 디 베스를 뜬공 처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2회초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1사 후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에게 안타를 내준 오타니는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에게 볼넷을 내줬다. 이어 브룩 홀트에게 좌전 안타를 맞고 1점을 허용했고, 베츠를 볼넷으로 내보내 만루에 몰렸다. 앤드루 베네티를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잡고 아웃카운트와 1점을 맞바꾼 오타니는 라미레스를 내야 땅볼로 처리해 길었던 2회를 마쳤다.

에인절스 벤치에서는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오타니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조기 강판을 결정했고, 3회부터 루크 바드가 마운드에 올랐다. /연합뉴스

덕아웃 T 특특

▲치고 싶었어요 = 안타를치고 싶었던 '안방마님' 김민식이다. 김민식은 지난 17일 LG와의 홈경기에서 2-2로 맞선 5회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던 그는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익수 플레이어로 몰려났다. 그리고 2사 만루에서 세 번째 타석이 돌아왔다. 동점이었던 만큼 대타를 투입할 수도 있었던 상황. 덕아웃을 슬쩍 돌아봤던 김민식은 타석에 들어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연패 탈출에 큰 역할을 했다. 김민식은 “대타 타이밍이라 혹시 교체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덕아웃을 봤었다. 내가치고 싶었다. 운이 좋았다. 공이 와서 맞아줬다”고 웃었다.

김기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해서 잘해보자 = 4연패

김민식 “간절하게치고 싶었던 안타 ... 공이 와서 맞아주네요”

에서 탈출했던 지난 17일,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순식간에 라커룸으로 사라졌다. 이날 이례적으로 선수단 미팅이 있었던 탓이다. 김기태 감독이 직접 소집한 자리. 18일 전날 미팅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잘하자”고 했다”며 웃었다. 그는 “못하는 건 괜찮지만 베이스 커버, 백업 플레이 등 기본적인 부분은 놓치면 안 된다. 기본에 충실해서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팻딘 “홈런 안맞는 방법 찾아야”

▲방법을 찾아보겠다 = 팻딘에게 숙제가 주어졌다. 바로 LG 양석환 공략법이다. 팻딘은 17일 LG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6이닝 6피안타(피홈런) 3볼넷 6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하며 선발 임무를 완수했다. 4-3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몰려났지만 아쉽게 9회 4-4가 되면서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14·15일 등판이 두 차례나 밀린 데다 휴식일까지 겹치면서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준 팻딘. 김기태 감독도 “초반에 투구수가 많아 5회나 던질까 걱정했다. 아쉽게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잘해줬다”고 좋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이날 팻딘은 6회 2사에서 홈런을 맞았다. 앞선 잠실 원정에서 시즌 첫 피홈런을 안겨줬던 양석환이 또다시 팻딘을 상대로 홈런을 기록했다. 팻딘은 “앞선 홈런은 거의 눈높이로 간 공을 쳤다”며 “공략법을 연구해보겠다”고 속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승혁 “너무 쉬어서 걱정”

▲계속 물어봤어요 = 너무 쉬어서 걱

정인 한승혁이다. 18일 홈런 시간에 한승혁은 임기영과 함께 볼펜 피칭을 했다. 두 산과의 주말 3연전에 나란히 출격하는 두 사람은 실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볼펜 피칭으로 감을 잡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한승혁은 지난 10일 한화전 등판 이후 기록이 없다. 이날 선발로 나왔던 한승혁은 15일 롯데와의 홈경기 선발로 예정됐었지만 비와 미세먼지로 두 차례 경기가 취소되면서 등판 날짜가 밀렸다. 그리고 양현종이 LG전에 출전하기로 하면서 20일 선발로서 두 번째 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이날 볼펜에서 30개의 공을 던진 한승혁은 “공을 던지던 오라데서 느낌이 이상했다. 공을 던지면서 계속 (볼펜 포수에게) 공 제대로 가고 있다고 물었다”며 웃었다. 한승혁의 걱정과 달리 볼펜 피칭 평가는 좋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